# 올여름, 불교무용 진수 만난다

**'제12회 불교무용대전'**
**6월 12일~7월 4일 대학로서**
**7월 3일 기념학술대회 개최**

**'제115회 한국 명인명무전'**
**6월 2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원로·중견 무용가 78명 참여**


수(修) 예술단이 불교무용대전서 선보이는 '修-닦다' 공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여름, 불교무용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펼쳐진다.

시작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불교무용대전'이다. 불교무용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가 주최·주관하고 조계종 문화부가 후원하는 제12회 불교무용대전은 불교를 소재로 한 무용 작품 가운데 불법승(佛法僧) 삼보를 폄훼하지 않는 전통·창작 분야의 모든 작품을 아우르는 경연으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2회 불교무용대전은 본선 공연을 비롯해 기념학술대회, 결선 및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주요 일정은 △본선 공연(6월 12일~6월 28일, 성균소극장) △제12회 불교무용대전 기념학술대회(7월 3일, 대학로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결선 및 시상식(7월 4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된다.

불교무용대전에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된 국내 12개 팀과 해외 3개 팀 등 총 15개 팀이 참가해 3주간 매주 금·토·일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본선 및 결선 심의를 거쳐 종합대상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불교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발전 방향을 조명하고, 국내외 예술가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불교에서 몸짓과 춤은 단순한 시각적 유희가 아니라 수행이자 부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보현행원(普賢行願)"이라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찰나의 몸짓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평온과 치유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귀한 감로수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동국예술기획이 1990년 11월 21일 처음 선보인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올해에도 무대에 오른다. 동국예술기획은 "6월 21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제11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통춤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세대 간 전승의 의미를 보여주는 축제로 꾸며진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지역 무형유산 보유자·이수자, 전통무용가들이 78명이 참여해 진쇠춤을 시작으로 살풀이춤, 교방굿거리춤, 춘앵전, 함흥검무, 태평무, 호남산조춤, 승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설과 사회는 국악인 오정해 씨가 맡았다.

제11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관람료는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3만원이다.

# 지친 청춘, 템플스테이로 오세요

**문화사업단 '청춘 템플스테이'**
**7월 한 달 진행…98개 사찰서**
**7000명에게 3만원 체험 기회**
**6월 24~25일 지역 예약 진행**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와 갓생 살기에 지친 청춘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회복과 불교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한 힐링의 시간인 '청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 98개 사찰에서 총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청년기본법에 준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1991년~2007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청춘 템플스테이' 예약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예약 페이지는 6월 24일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세종권, 25일은 강원, 전라, 광주, 경상, 대구, 부산권 등 지역별로 오픈된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잠시나마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기를 바란다"며 "공기 좋고 푸르른 산사에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 진정성 있는 참회

㊹ 이참사참(理懺事懺)

理 懺 事 懺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유명한 예수의 일침에, 군중은 나이 많은 이부터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살아가면서 한 번도 허물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없다. 군중은 부끄러움에 돌을 내려놓은 것이다.

우리는 허물 자체보다 허물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에 더 큰 씁쓸함을 느낀다. 잘못이 드러나면 성찰하기보다 먼저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사과문부터 준비한다. 아집은 그대로 쥔 채 상황만 모면하려는 위기관리용 사과는 참된 치유에 이르지 못한다.

공자는 '과즉불탄개(過則不憚改)'라 하였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잘못이다"라고 하여 허물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군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사참(事懺)과 이참(理懺)으로 설명한다. 사참이 현상적 차원의 참회라면 이참은 본질적 차원의 참회이다. 규봉 종밀(780~841) 스님은 〈원각경대소초〉에서 "사참이란 성현의 형상을 마주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참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율장에서도 "죄가 있거든 마땅히 드러내어 참회해야 한다. 드러내면 안온하고 숨기면 죄가 더욱 깊어진다"라고 하여 참회의 출발이 정직한 고백에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이참은 죄의 뿌리를 끊는 수행이다. 종밀 스님은 "지은 바 죄의 자성(自性)이 본래 공(空)함을 관하는 것"이라 하였고, 〈관보현보살행법경〉에서는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 지혜의 해가 뜨면 녹아 사라진다"고 설한다. 이참은 죄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고, 탐·진·치와 아집의 근원을 비워내는 공의 지혜이다.

그러나 이참은 허물을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죄무자성(罪無自性)이되 종심기(從心起)"라고 한다. 죄는 본래 고정된 자성이 없지만, 한 생각의 의도로 인해 연기적으로 형성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죄의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아니라 죄를 낳는 마음의 근원을 성찰하는 일이다.

〈천수경〉의 참회게는 사참의 정직함과 이참의 지혜가 하나 되는 경지를 노래한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사라지느니라.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사라져 둘 다 함께 공해지면, 이것을 일컬어 참다운 참회라 하느니라."

잘못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용기와 더불어 잘못을 낳은 마음의 뿌리를 비워낼 때 비로소 진참회(眞懺悔)가 완성된다. 그 순간 인간은 죄책감의 감옥을 벗어나 허물에 얽매인 삶을 넘어 자유의 길로 나아간다.

〈화순 불암사 주지〉

# 올해도 돌아온 '국중박 분장놀이'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개 전국 박물관으로 확대**




지난해 문화유산 코스프레로 화제가 됐던 '국중박 분장놀이'가 올해도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국중박 분장놀이'는 참가자가 박물관의 유물을 모티프로 직접 분장하고 무대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표현하는 관람객 참여형 코스프레 행사다. 지난해 첫 대회 당시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와 SNS 확산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국중박 분장놀이'를 13개 소속 박물관이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 개편된다. 모집 단계부터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형상화한 포스터를 제작했다.

본선은 9월 첫째·둘째 주말 동안 전국 4개 권역의 거점 박물관에서 진행된다. 1권역(중앙·제주·춘천)은 9월 5일 국립춘천박물관, 2권역(부여·공주·청주·익산)은 9월 6일 국립공주박물관, 3권역(경주·대구·진주·김해)은 9월 12일 국립대구박물관, 4권역(광주·전주·나주)은 9월 13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최종 결선은 9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다.

시상 규모도 한층 커졌다. 결선 진출 20팀 중 국립중앙박물관장상 5팀에는 각 300만원, 최우수상 5팀에는 각 100만원, 참가상 10팀에는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권역별 본선 진출 40팀에는 각 30만원의 참가상이 주어지며, 본선·결선 참가자에게는 팀별 1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6교구본사 麻多寺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불기 2570(2026)년 제77주기
백범 김구(원종스님)선생 추모다례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지승원에 빛나는 천년고찰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 오는 6월 26일(금)
백범 김구(원종스님)선생의 제77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합니다.
호국의 정신이 고고히 이어지고 있는 마곡사에서 원종스님이라는 법명으로 출가하신
김구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 하고자
마련한 행사에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70(2026)년 6월 일
주지 취성 원경 합장




■일시 : 불기2570(2026)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공주 태화산 마곡사
■후원 : 충청남도 공주시 ※오전 10시 문화행사 / 오전 11시 추모다례재

◈ 불·법·승 ◈
문관부 제66호
사단법인 대승불교삼보조계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월봉 종회의장 지홍 원로부원장 정공. 정민
감찰원장 진성 총무원장 법장 교육원장 덕일
포교원장 법진 사무총장 평산 종회부의장 법융
각부원장 용현. 종욱. 진각

중앙종회의원 월봉 지홍 법장 법융 진성 덕일 법성 평산 법륜 무공 종욱 법진 지일 도능 법정 용현 선묵 도관 도연 천보 도오 도율 무상 (法人이사)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선묵 문화부장 도능
재무부장 상묵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기획국장 청붕
총무과장 만주 사서국장 도율 규정국장 대연 사 무 장 신연화성

학 인 모 집
불교경전 의식(선교학 · 범패 · 어산 · 바라 · 작법무)
대한불교종립기관 승가대학 교육원 · 염불원

■ 총 무 원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4 전화 055)338-0089 팩스 070)7966-2830
■ 중앙종회 부산시 금정구 반송로 440-9 전화 051)524-8932